

이스타항공, 청년실업 해소 앞장

취업오디션 '잡영챌린지' 참여 통해 지역인재 채용... 김은지·곽지민씨, 최종 오디션 1·2위 차지

전북 대표기업인 이스타항공이 매년 전북도의 취업오디션 참가로 지역인재를 지속적으로 채용하며 청년실업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1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전북도, 전북중소기업청 등이 주최하고 (사)전주벤처기업육성추진지구발전협의회가 주관한 '잡영챌린지 시즌5'에 한국전기안전공사, 대우전자 부품, 전북은행과 함께 참가해 오디션 청년들의 취업 도전에 힘을 보탤다.

지난달 19일부터 진행된 이번 행사는 총436명의 참가자 중 2차례 예심을 통해 36:1의 경쟁을 뚫고 선발된 12명의 최종 본선 진출자들이 1일 본선 무대에 올라 참여기업들의 최종 면접을 봤으며, 이들 본선 진출자 가운데 3명이 이스타항공 최종 오디션 면접에 참

가했다.

이 중 이스타항공 최종 오디션 참여자 가운데 김은지(22/원광보건대졸/자)가 항공승무원을 향한 열정과 노력을 선보여 최종 선발의 영광을 차지했으며, 곽지민(23/호원대 4년)씨도 2위로 수상했다.

특히 김은지씨는 '객실승무원의 경쟁력'이라는 주제의 기획력 있는 프리젠테이션을 발표해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스타항공 오디션에 최종 선발된 김은지씨는 "세계로 뻗어가는 이스타항공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너무 감격스럽다"며 "다정한 서비스와 함께 기내 안전을 책임지는 객실승무원으로서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이 되도록 노력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씨는 추후 진행 될 이스타항공 객실승무원 공개채용에 응시 시 우선 채용의 혜택을 받으며, 곽씨는 최종 임원 면접 대상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스타항공은 잡영챌린지 시즌2부터 4회 연속 참여해 김정민, 황유정, 나소희, 이화수 씨 등 4명의 객실승무원을 채용했다.

이스타항공 이주연 객실본부장은 "잡영챌린지를 통해 열정을 갖춘 우수한 지역 인재를 채용할 수 있어 회사에서도 좋은 기회로 생각한다"며 "특히 올해는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지원해 심사에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지역인재 채용에 앞장서온 이스타항공은 전북도로부터 이주연 객실본부장이 지난 2015년 청년 일자리 창출 유공자 표창장을 받았다.

이상직 이스타항공 회장은 "2007년

설립 초기 30여명이던 직원이 현재 1200여명으로 4000% 가까운 고용 성장을 이뤄냈다"며 "기업의 가장 큰 역할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증대로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가겠다" 밝혔다.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이스타항공은 전북지역 할당 채용 도입을 통해 잡영 챌린지, 미스전북, 미스변산 등 지역 대회 입상자 등을 포함해 객실승무원과 전주에 위치한 예약센터로 30% 이상의 지역 인재를 지속적으로 채용해 오고 있다.

또한 객실승무원 공개채용 시 전북 지역 응시자들의 편의를 위한 지방현장 면접제도와 LCC 항공업계 중 유일하게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인재용 기자



'중진공 윤리경영의 날' 개최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실천 다짐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는 2일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실천 다짐을 위한 '제4회 중진공 윤리경영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임직원 청렴서약식', '청렴리본달기', '청렴퀴즈대회', 'CEO 윤리메시지 전파', '청렴거울 비추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중진공 김형수 전북본부장은 "아무리 좋은 윤리경영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있어도 이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며, "국민과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중진공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직원들과 고객들에게 전파했다."

특히 이날 중진공 직원들은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을 돕고자 업무상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윤리경영의 날' 행사를 통해 토론회를 통해 조직구성원 상호간에 청렴을 독려하는 반부패·청렴 자율실천문화 정착을 결의하여 많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었다.

중진공 김형수 전북본부장은 "아무리 좋은 윤리경영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있어도 이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라며, "국민과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중진공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직원들과 고객들에게 전파했다."

/인재용 기자

시중은행, 중소기업 신용대출 평균금리·가산금리 '오름세'

중소기업 대출이자 부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듯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금리가 들쭉이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신용대출 평균금리와 가산금리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신용대출이 담보대출보다 금리 수준이 높은 데다 대부분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만큼 중소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2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직전 3개월간 취급된 대출

금리 평균치)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올 1월과 비교해 0.05%~0.15%포인트 가량 상승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KB국민은행(6.05%→6.10%), 우리은행(5.02%→5.08%), KEB하나은행(4.86%→4.93%), 신한은행(4.42%→4.43%), 씨티은행(3.63%→3.78%) 등의 평균 대출금리가 오름세를 보였다.

농협은행(5.64%→5.44%)과 SC은행(7.58%→4.38%)은 금리가 내렸다.

신용대출 가산금리도 상승했다. 국민은행(4.55%→4.58%), 우리은행

(3.57%→3.64%), 신한은행(2.93%→2.97%), 씨티은행(2.06%→2.19%) 등이 내렸다.

통상 은행들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금리를 산정하는데, 기본금리는 시장금리의 변동에 따라 움직이는 반면 가산금리는 차주의 신용등급이나 은행의 자체적인 여신정책, 은행 마진 등을 반영해 결정된다.

중소기업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 금리 역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KB국민은행(5.68%→6.16%), KEB하나은행(4.83%→4.93%), 우리은행(4.76%→4.88%), 신한은행(4.60%→4.82%), 씨티은행(4.22%→4.37%) 등의 평균 대출금리가 상승했고 농협은행(5.11%→4.94%)과 SC은행(4.45%→

4.39%)은 금리가 내렸다.

신용대출은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로 주로 취급되는데, 일정 기간 동안 고정된 금리를 적용받는 고정금리형 대출과 달리 변동금리형 대출은 시장금리의 변동성이 즉각 반영되는 만큼 금리 상승에 따른 충격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 들어 은행권의 기업여신 리스크 관리가 한층 강화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대출 규모가 지난해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금조달 창구로 은행 대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갈수록 높아지는 대출문턱과 이자부담에 경영난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캠코, 압류재산 공매·담보물건 경매 진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본부는 5일부터 7일까지 전라북도 소재 재산 약 25억원 규모, 총 61건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

이번 공매는 전북도민에게 유익한 공매 정보를 제공하고 공매 활성화를 통한 국가 및 지자체 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

캠코가 진행하는 주요 공매물건에는 전주시 완산구 소재 아파트와 전주시 덕진구 소재 단독주택, 남원시 고죽동 소재 아파트 등이 있다.

입찰 희망자는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물건의 입찰일정에 맞춰 온비드(On-Bid)에 입찰서(입찰보증금 납부 포함)를 제출하면 입찰이 완료된다.

공매 입찰 결과는 8일 11시 이후부터 온비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읍시 망제동 소재 공장물건에 대해 법인 경매를 통해 매각을 진행한다.

/인재용 기자

한전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 무결점 전력확보 다짐

한국전력 무주지사는 4일 지사 강당에서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170개국, 선수 632명, 관람객 포함 3,000여명이 참여하는 WTF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에 대한 사전 전력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무결점 전력확보 다짐 회의를 개최했다.

한전은 WTF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태권도 대회가 전북에서 개최되는 만큼 무결점 전력공급을 위해

주·예비선로 열화상 진단, 지중 공급설비 점검, 태권도원 내 수전설비 및 숙박시설 점검 등을 해왔다.

또한 대회기간 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복구태세를 위해 태권도원 시설관리팀과 합동으로 정전 대응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이 기간 중 전력확보 상황실을 운영한다.

/인재용 기자

익산국토청, 건설공사현장 점검 메뉴얼 발간 보급

건설공사품질 향상,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건설공사현장 점검 메뉴얼'을 발간했다.

2일 익산국토관리청에 따르면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에 따라 익산국토청 발주공사 및 외부 발주 및 인허가 공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내용을 토대로 지난해에 이어 '건설공사현장 점

검 메뉴얼'을 제작해 호남지역 건설현장 등에 보급했다.

이 메뉴얼은 건설공사 현장점검 업무 소개와 더불어 다양한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안전, 품질관리 등 분야별 주요 점검내용을 사례별로 정리했고, 관계법령 등을 수록해 모든 현장 건설기술자들이 누구나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졌다.

/인재용 기자

농협 손해보험, 우박 피해 농가 방문·피해현황 점검

지난달 31일 순창과 고창 등 전북 일부 지역에 0.2~1cm 비를 동반한 우박이 쏟아졌다.

특히, 순창군 복흥면과 금과면에 배, 복숭아, 블루베리, 오디, 복분자, 매실 등 59ha 117농가에서 피해를 입었다.

이에 이운배 NH농협 손해보험 대표이사과 강태호 전북농협 본부장, 한재현 순창군지부장 등은 2일 순창군 금과면에 우박 피해 농가를 찾아 피해현황을 점검했다.

이운배 대표이사는 "본격적인 농작물 성장 시기에 우박으로 인해 과수와 밭작물의 피해가 커 농업인들의 상심이 크다"며, "손해사정인을 긴급 투입해 신속한 피해현황 파악 및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